▪ 교회소식 ▪

1. **신년주일** :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노력합시다.
2. **임원교육** : 오늘 오후집회 시간에 임원교육이 있습니다. 신천임원을 포함하여 모든 임원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헌금 봉헌** : 다음 주일에 의무헌금(약정)을 봉헌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8-11일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5. **재무부회의** : 재무부회의를 14일 오후 3시에 중고등부실에서 합니다.
6. **도서관 봉사** : 푸른어린이도서관에서 봉사자를 구합니다.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시간 1시간 봉사)
7. **교회생활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청파마을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주차권)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식사 반찬과 커피 대접 : 김성순 권사

다음 주 설교 본문	삼상 7:7~14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정민	류건형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장원호 조문규 박기영 진정숙 주은경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이형숙		

오늘 식당 봉사	박영신 박미연 이수자 이미휘 조미선 채옥춘 김종락 설규범		
다음주식당봉사	이현숙 이은미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임당재 이국노 신정훈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광일

2018-1 1월 7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신년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9. 하늘에 가득 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가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 흐르던 냉전의 기류가 사라지고 평화의 봄이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씩 회복되게 하시고 상생의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대결과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의 장을 넓혀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눅1:78b,79 ····· 인도자

▲ 교 독 문 ····· 93. 새해(1)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막 1:4-11 ····· I. 인도자 II. 강세기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빛과 소금 되어 ····· 마중물 찬양대

II. 예수 사랑하심은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김근종 정옥영 김금순 김나름 김 린 김명희 김문주 김미숙
김수진 김재흥 최희영 김정기 김중수 이순정 김지해 김진옥 민지회 박해숙
백성래 성지현 안종일 정현주 양경해 왕수명 유금주 윤순우 윤영미 이광석
이경희 이동천 이성원 이은주 이재문 이주은 류건형 이증자 이현주 임당재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장혜정 정보라 정원석 김현영 조경자
조항범 최옥분 최종원 한기택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성건 정지혜 홍복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1

감사헌금

김금순 김나름 김와니 권윤경 김태정 김태호 선미숙 문병욱 박기태 박병구
김인순 박순섭 권미숙 박재영 이현정 방경선 방대권 백성래 서원금 신진식
변혜정 안미숙 오미숙 유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경남 이상도 이성원
이수자 이재삼 전정현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임종수 전유리 정구봉 정영례
조호진 최승주 최혜정 한상수 남해린 한인철 조윤숙 홍복선 무명4
김진우 임미진(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생일감사헌금

김희우 서원금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용진 박효선 김창숙 장현희 채일석 무명2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신년 기원

- 이성부

시인들이 노래했던
그 어느 아름다운 새해보다도
올해는
움츠린 사람들의 한 해가
더욱 아름답도록 하소서/
차지한 자와 영화와
그 모든 빛나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도
올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더욱 열매 맺도록 하소서/
세계의 모든 강력한 사람들보다도
쇠붙이보다도
올해는
바위틈에 솟는 풀 한 포기,
나목을 흔드는 바람 한 점,
새 한 마리,
억울하게 사라져가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런 하잘것없는 얼굴들에게
터져 넘치는 힘을 갖추도록 하소서/
죽음을 태어남으로,
속박을 해방으로,
단절을 가슴 뜨거운 만남으로
고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들의 한 해가 되도록 하소서
역사 속에 그리움 속에
한점 진하디진한 언어를 찍는
한해가 되도록 하소서

말 씀	**영적 거인들의 만남**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516. 옳은 길 따르라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형제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히 여기며 사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며 사십시오. 진리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갈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며 살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임원교육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행복이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는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뜻밖에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행복의 대열에서 열외된 듯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불행을 체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본다. 개인의 행복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느 날 큰마음 먹고 단행한 조촐한 외식 자리에서 식탁에 앉은 한 가난한 부부보다 크고 풍성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부자가, 그 식탁의 풍성함에 비례하여 훨씬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할 수 없다. 식탁의 크기나 풍성함의 정도가 결코 행복의 정도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월급이 적어서, 또는 재벌 아들이 아니어서, 또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천상 시인 천상병(그의 세 번째 시집 제목은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이다)은 행복에 관한 작지 않은 충격을 준다.

>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한 잔의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
> - 천상병, 「나의 가난은」에서

소유의 정도에 따라 행복의 있고 없고를 결정하려는 소위 '소유 지향의 행복관'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물이 거의 없는 천상 시인의 이 소박한 행복은 불가사의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꺾으려 한다. 그러나 시인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한다. 에리히 프롬이 지적한 것처럼 아름다운 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대신 그 꽃을 꺾음으로써 행복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다. 꽃을 한 송이 꺾은 사람은 곧 두 송이의 꽃을 소유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마찬가지로 두 송이의 꽃을 꺾은 사람은 세 송이의 꽃을 소유한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불행을 선고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소유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을 경솔하게도 행복 문제에 끼워넣은 결과다.

소유의 정도만을 가지고 행복을 저울질하려는 사람은 늘 행복을 '꺾으려고' 긴장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복할 겨를이 없게 된다. 그들은 참된 행복이 '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직업도 없는, 한 몹시 가난한 시인이 막걸리값만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선언할 때, 그 시인의 불가사의한 행복의 비밀을 믿을 수 없어 한다.

> 나는 세계에서 /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 생활의 걱정이 없고 / 대학을 다녔으니 / 배움의 부족도 없고 / 시인이니 / 명예욕도 충분하고 / 이쁜 아내이니 / 여자 생각도 없고 / (…) /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 아내가 다 사주니 /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 (…) /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
> - 천상병, 「행복」에서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